

## 노동시장의 새로운 국면, 청년실업자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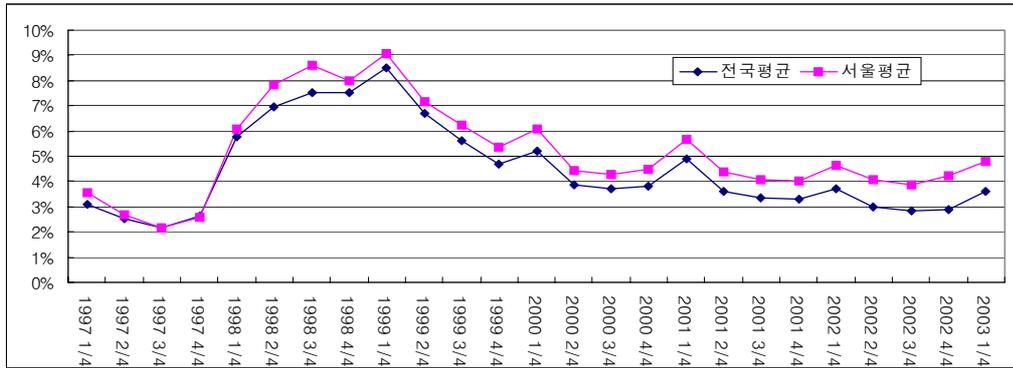
### 청년실업자, 왜 이제서야 문제시되는가?

- IMF위기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청년실업자의 만성화를 초래
  - IMF위기 이후 노동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채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청년실업률의 상승을 야기했지만,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가 신규채용위주에서 경력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 청년실업률의 만성화가 문제시되기 시작함
  - 청년실업자의 만성화 현상은 극단적인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포기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

청년실업률은 OECD의 기준에 의하면 15~24세의 실업률로 정의되나,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사회진출시기가 늦으므로 일반적으로 15~29세의 실업률을 사용함

### 서울시 실업률의 현황

-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평균을 상회
  - 서울시 실업률은 IMF위기 이후 1999년 1/4분기에 9.1%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3/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(그림 1)
  -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90년대 후반 약 0.5~0.7%포인트에서 2002년 2/4분기 이후 1%포인트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



[그림 1] 전국실업률과 서울실업률의 추이

○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IMF위기 수준으로 근접

- 2003년 1/4분기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9.5%로 서울시 전체 실업률 4.8%의 두 배에 이르고 있으며, 전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.9%로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을 대변
- 청년실업률은 '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 3/4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와 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신규채용시장의 위축으로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하여, 최근에 IMF위기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음

[표 1]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추이 (단위: 천명, %)

| 구분       | '97  | '98  | '99  | '00  | '01  | '02. 2/4 | '02. 3/4 | '02. 4/4 | '03. 1/4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청년실업자(A) | 74   | 168  | 147  | 108  | 110  | 102      | 96       | 106      | 126      |
| 청년실업률    | 4.8  | 11.9 | 10.5 | 7.7  | 8.1  | 7.7      | 7.5      | 8.3      | 9.5      |
| 전체실업자(B) | 136  | 365  | 335  | 236  | 224  | 204      | 192      | 211      | 238      |
| 전체실업률    | 2.7  | 7.6  | 7.0  | 4.8  | 4.5  | 4.1      | 3.8      | 4.2      | 4.8      |
| A/B      | 54.4 | 46.0 | 43.9 | 45.8 | 49.1 | 50.0     | 50.0     | 50.2     | 52.9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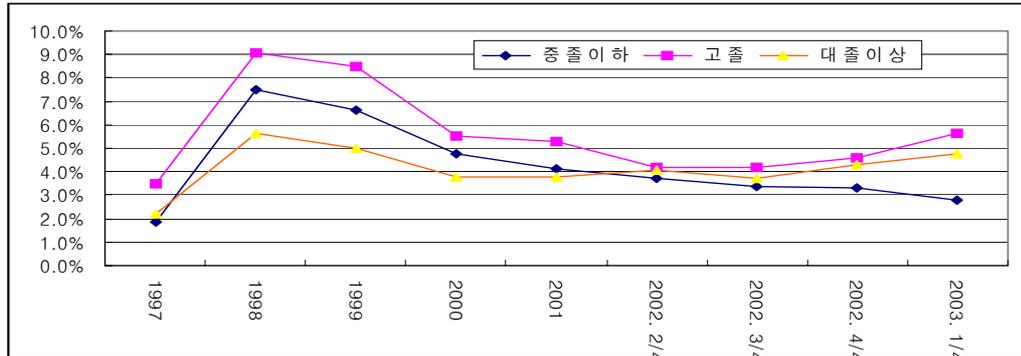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○ 서울시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

- 중졸이하의 실업률은 IMF위기 이후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졸 및 대졸이상 실업률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2002년

3/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됨

- 고졸자의 실업률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'97년 23.0%, '01년 27.7%, '03년 1/4분기 39.5%로 나타나 고학력실업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

[그림 2] 서울시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

### 청년실업증가의 구조적 원인

- 공급측면 : 고학력노동자의 양적 증가 및 전공과 직업과의 불일치
  - 전국의 대졸이상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는 1996년 30만 명에서 2002년 43만 명으로 약 13만 명 증가함. 이중 약 39%가 수도권에서 양성됨
  -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, 2000년 취업자와 취업경험자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정도는 33.2%에 불과한 반면 39.9%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잦은 이직현상을 유발하고 있음. 이는 취업자보다 취업경험자의 불일치정도가 더 높은 것에서도 확인됨

[표 2] 서울시 취업자 및 취업경험자의 학력별 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(단위: %)

|       | 매우 일치       | 일치          | 보통          | 관계없음        | 전혀 관계없음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전 체   | 12.3 (10.3) | 20.9 (19.0) | 26.9 (23.8) | 21.7 (26.5) | 18.2 (20.4) |
| 취업자   | 13.5 (11.6) | 21.5 (19.7) | 25.2 (22.5) | 21.0 (25.4) | 18.8 (20.8) |
| 취업경험자 | 8.7 (6.4)   | 19.2 (16.6) | 31.6 (28.0) | 24.0 (29.9) | 16.5 (19.1) |

자료: 통계청, 「2000 사회통계조사 교육부문」, 2001.

주: 괄호 안의 숫자는 전국치

○ 수요측면 : 노동수요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

- 한국노동연구원(2003)에 의하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30대 대기업·공기업·금융산업 등 신규 졸업자가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주요 기업집단의 일자리가 '97~'01년 사이에 약 29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
- 한편 주요 기업집단의 채용구성을 보면 1996년 신규졸업자 65%, 경력자 35%를 차지하였던 것이 IMF위기 이후 구성비가 반전되어 2001년 신규졸업자 26%, 경력자 74%로 역전됨. 이러한 경력자에 대한 우선채용관행은 신규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음

[표 3] 서울시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추이 (단위: 천명, %)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| 1997  | 1998             | 1999            | 2000            | 2001            | 2002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청년층 인구            |     | 2,899 | 2,852<br>(-1.6)  | 2,794<br>(-2.0) | 2,739<br>(-2.0) | 2,644<br>(-3.5) | 2,533<br>(-4.2) |
| 청년층<br>경제활<br>동인구 | 취업자 | 1,481 | 1,246<br>(-15.9) | 1,256<br>(0.8)  | 1,294<br>(3.0)  | 1,255<br>(-3.0) | 1,206<br>(-3.9) |
|                   | 실업자 | 74    | 168              | 147             | 108             | 110             | 105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계   | 1,555 | 1,414            | 1,402           | 1,402           | 1,364           | 1,311           |

자료: 통계청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

주: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

- 1998년 IMF위기의 여파와 이후 2년간 경기 회복에 의한 취업자 증가를 제외한 최근시기에는 청년인구의 감소율이 취업자의 감소율보다 큰 수치를 보임. 이는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감소현상이 인구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

청년실업의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

-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분야와 창업에 대한 지원확대
  - 취업효과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IT관련 서비스업, 디지털미디어산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·육성하여 신규고용창출을 유도
-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「2001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」(2002)에 의하면 청년구직자의 앞으로 계획은 취직(52.3%), 개인사업 및 창업(14.6%),

휴식(7.6%)순으로 나타남.

-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의 프로그램 확충을 적극적으로 모색
- 직업교육의 다변화 및 비정규직 활용의 극대화, 취업정보의 양성화
  - 청년층 실업자의 선호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직종의 다변화를 모색
  - 인턴취업지원제도를 확대·시행하여 신규졸업자의 직장체험성격으로서 경력을 쌓게 하여 실업기간을 줄이게 해야 함
  - 장기적으로 학교별·전공별 취업률을 조사 공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이를 검토한 후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가 졸업자의 인력수급에 대한 자율적인 시장 조절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

### 서울시 차원의 대응

- 직업전문학교의 수요 지향적 주문식 직업교육의 활성화 모색
  - 직업교육의 실무 지향적 요소와 현장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, 기업과 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협력·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
  - 청년층의 선호직종 및 취업유망직종을 개발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훈련과정의 활성화 모색
- 구인·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보완하는데 주력
  -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은행을 각 지역대학의 취업지원실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졸업예정자에 대한 구직등록 및 직업상담 실시
- 서울시 자체적인 인턴공무원제 확대·도입하여 직장체험으로서 경력을 쌓게 하는 것이 필요
- 창업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규 졸업자 및 취업 경험자에 대한 청년기업가 양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신용보증체계의 구축필요

이한일 · 서울시경 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